

## 제13호 OTIS·IG 엘리베이터 박종훈 안전관리자



### 국내기업도 조속히 선진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해야 할 때

**오**뎀을 나른하게 하는 봄이 찾아오면서 마음도 여유로워진다. 그러나 오늘 찾은 안전인은 바쁜 탓인지 여유로움을 찾아보기 힘들다. 바쁜 와중에도 취재에 성실히 응해주는 그를 보면서 상대를 배려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OTIS·IG 엘리베이터의 “박종훈” 안전관리자가 오늘 찾은 안전인이다.

#### 알아야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안전업무를 하지 않았으나, 안전의 기본이념인 인간존중에 공감하여 안전업무를 하게 되었다는 박종훈 안전관리자는 엘리베이터와 관련한 업무 수행시 무엇이 위험하고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는지를 몰라 제대로 된 안전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함께하는 등 적극성을 보인 끝에 지금은 엘리베이터와 관련한 안전은 어느 정도 자신이 선다고 한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안전이 아닌 현장 환경에 맞는 맞춤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박종훈 안전관리자의 주장이다.

#### 국내 기업도 화려한 안전관리에서 탈피해야 할 때

입사 당시 IG산전에서 지금의 다국적 기업인 OTIS와 함께하고 있는 OTIS·IG 엘리베이터까지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국내 대기업의 안전관리와 선진 외국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국내 기업의 안전시스템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국내 기업의 안전은 무늬만 안전인 화려한 안전활동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면, OTIS·IG의 안전보건시스템은 인간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과 무조건적인 지키기의 안전이 아닌, 상황에 맞는 안전과 정량적인 평가를 체험하여 우리나라의 안전시스템이 가야 할 방향이 지금이런 선진 외국기업의 안전보건시스템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 있는 말을 한다.

엘리베이터 업종에서 체계적인 안전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지도서를 만들기 위해 지금도 자료를 수집·분석중이며, 3~4년 후에 완성을 목표로 매진하는 박종훈 안전관리자는 끝으로 안전인들에게 「지금 작업자들의 활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누구의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며, 우리 안전인도 자질 향상을 위해 매진할 때가 아닌가」라는 말을 남긴다.

이는 우리 안전인도 시대적 배경에 따라 안전행동에 대한 마인드를 새롭게 정립할 때라는 메시지 전달이기도 하다. 

〈최종덕 기자〉